

【첨부자료 1】 세월호 특별수사단에 요청하는 진상규명에 관한 의견서 요약

【세월호 침몰원인과 관련】

【요청 항목1】

제주VTS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전 해수부가 내놓은 (제주VTS의 데이터라고 주장하는) AIS의 진위/조작 여부를 가려 주십시오.

□ 이유

- 세월호 AIS 데이터는 사고 경위의 재구성에 가장 강력한 단초가 되는 증거
- 세월호 항적의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침몰원인 규명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음.
- AIS 데이터와 관련하여 3차례에 걸쳐 누락구간에 복원되었는데, 그 과정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, AIS 데이터의 진위/조작 여부에 최종 결론 나지 않음.
-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도 AIS 항적 등에 관한 조사의 한계를 인정하고 정밀검증의 필요성을 지적했음

【요청 항목2】

DVR 수거 과정 조작 건 수사는 CCTV 녹화영상 편집/조작 여부 및 편집/삭제된 내용을 밝히는 수사로 이어져야만 합니다.

【세월호 승객구조과정 관련】

【요청 항목3】

123정과 선원 간 사전 연락이 없었음에도(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) 정확히 조타실과 기관실 선원들만 편셋 구조한 이유/과정을 재수사해 주십시오.

□ 이유

- 세월호가 급격하게 우회전한 원인에 대한 의문,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보인 무책임한 탈출행위, 123정의 세월호 조타실 접근 후 선원구조 등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음모론의 증폭 원인
- 감사원, 검경합동수사본부와 세월호 제1기 특조위 청문회 과정에서도 123정장

이 세월호 조타실로 접근하여 선원들을 먼저 구조한 것과 관련하여 수사와 조사가 없었음



- 09:45경 세월호 조타실(윙 브리지) 접안 당시 또는 직후에 123정장과 승조원들이 옮겨탄 사람들이 세월호 선원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데, 이는 설득력이 없으므로 명백히 밝힐 필요

【요청 항목4】

이준석 선장은 사고신고 후 9시 45분까지 한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옷도 입지 못하고 급히 빠져 나왔는지 재수사해 주십시오.

□ 이유

- 선박의 해상 사고 시 구조 관련 기본 절차는 승객들 여객구역 대기→선장 “총원 퇴선명령” →선원들 비상 부서 배치표 임무수행→승객들 비상대피구역 이동 →해상으로 퇴선
- 퇴선 안내방송도, 퇴선 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없었음
- 09:24경 라이프링 착용시켜 탈출하라는 둘라에이스호 선장 요청도 묵살
- 09:25경 진도VTS가 탈출 결정을 내리라고 요구할 때도 선장과 선원들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음
- 08:52경 조타실에서 선원들이 모였고, 08:55경 제주VTS에 구조요청을 한 후 09:

45경까지 사이에 조타실에서 선원들의 대화, 선장과 선원들의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

【요청 항목5】

양대홍 사무장은 왜 “검정색 상·하 일체형 작업복(스즈키복)” 을 입은 채 수습되었는지 밝혀주시시오. 선사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사고신고 후 양대홍 사무장은 분명히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.

□ 이유

- 세월호 사무장 고 양대홍에 대한 검시조사에 의하면 고 양대홍은 2014. 5. 15. 14:29경 “해저 세월호 선내” 에서 발견, 발견 당시 “검정색 상·하의 일체형 작업복” 을 착용한 상태임
- 그런데, 세월호 여객부 사무장 등은 일반 승객과 구별하기 위하여 흰색의 제복을 입고 있었음(사진 참조)

【고 양대홍 사무장 착의 모습】



【요청 항목6】

경빈이 건 수사는 김석균 등을 위한 ‘의전’ 을 넘어 침몰 후 생존자를 찾아내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는 수사로 이어져야만 합니다.

【세월호 사고 후 정부의 대응과 진상 은폐 등과 관련】

【요청 항목7】

참사 당일 오전에 소집한 청와대 NSC의 내용과 관련 기록을 반드시 찾고,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과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김장수는 당일 무엇을 했는지 재수사해 주십시오.

□ 이유

- 세월호 사고 당일인 2014. 4. 16. 오전 8시 30분경 국가안전보장회의(NSC) 회의가 개최
- NSC 사무처장, 외교, 국방, 통일부 등 관계 부처 차관과 국정원 1차장 등이 참석
- 09:05 해경본청은 세월호 상황보고서를 접수했음, 해경본청은 위기대응메뉴얼에 따라 국가안보실에 보고 토록 되어 있음
- 09:06경 경찰청 밑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, 그 밑에 안산단원경찰서, 그 밑에 고잔파출소도 세월호 사고를 인지
- 청와대, 국정원 등이 09:19분에 YTN TV 보고 최초 인지했다고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

【요청 항목8】

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2014년 검찰수사를 방해한 이들(황교안, 우병우는 물론 아직 알려지지 않은 방해자들까지)뿐만 아니라, 그러한 외압에 굴복/타협함으로써 축소 수사/기소를 한 당시 수사진에 대해서도 수사해 주십시오.

【요청 항목9】

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1기 특조위 강제 해산 등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자들을 모두 재수사/기소해 주십시오.

【요청 항목10】

참사 직후(4월17일~18일 사이로 추정) 국정원이 선원들을 직접 심문을 했는지, 했다면 국정원이 왜? 무엇을? 심문했는지 재수사해 주십시오.

□ 이유

- 세월호 참사 직후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의 ‘해양사고 보고 계통도(제일 먼저 보고할 기관으로 국정원 인천지부와 제주지부)’, 2014. 6. 22. 11:40분경 세월호에서 DVR, 노트북, 디지털카메라 1대씩 인양 되었는데, 노트북 하드 디스크에서 ‘국정원 지적사항(1번에서 100번’ 등에 대한 의혹이 있었으나, 명백히 규명되지 못함
- 2014. 5. 20.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국무총리 정홍원은 “**세월호에서 선원이 보고**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.” 라고 답변이 있었는데, 그에 대한 사후 해명이 석연치 않음
- ‘해양사고 보고 계통도(제일 먼저 보고할 기관으로 국정원 인천지부와 제주지부)’ 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직후(구조요청 08:55)에 세월호 보안담당인 1등 항해사 강원식은 보고를 했어야 했음
- 실제로 강원식은 세월호 조타실에서 탈출한 후 급박한 상황에서도 핸드폰을 들고 통화를 하고 있음



- 목포해경은 세월호 1등 기관사 손지태에 대한 진술조서를 받았는데, 4. 16일(1

차 진술조서)과 4. 20(2차 진술조서)일인데, 세월호 1등 기관사 손지태는 검찰에서 매일 조사받았다고 진술하였고, 4. 17. 09:49:52경 아내에게 “오후 또 국정원 취조가 있을 텐데 마스크 하고 나가유”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음

【요청 항목11】

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요청하는 모든 수사 과제를 철저히 수사해 주십시오. 또한, 실질적인 공조를 해 주십시오.

【요청 항목12】

세월호 선체 인양 관련, 용역의 낙찰과정, 비용의 추가지급과정, 인양공법변경과정 등에서 발생한 관련 공무원 등 관계자들의 범행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.